



제163호

# 청년층의 교육 이수 현황과 시사점

김대은\*

## 배경

- 교육 이수율(educational attainment)은 전체 인구 중 특정 교육단계를 이수하고 그 교육단계의 공식적인 이수자격(최종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임
-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과 인적자원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청년층의 교육 이수 현황과 국제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업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장기화, 전공분야와 직업 간의 높은 불일치율 등에 기인함

-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사급 이상 이수율은 49%로 OECD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음
- 다만, 학문분야별 핵심 연구인력에 해당하는 석·박사급 이수율은 3%에 불과하여 조사대상 44개국 중 33위에 그쳤음

## 주요내용

-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9년 기준 69.8%로 OECD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45.0%보다 24.8%p 높음
  - 2019년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 대비 9.2%p 증가하여 OECD 평균 8.7%p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함
  -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76%로 OECD 평균 85%보다 낮음
  - 우리나라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좋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의 부족, 공공부문과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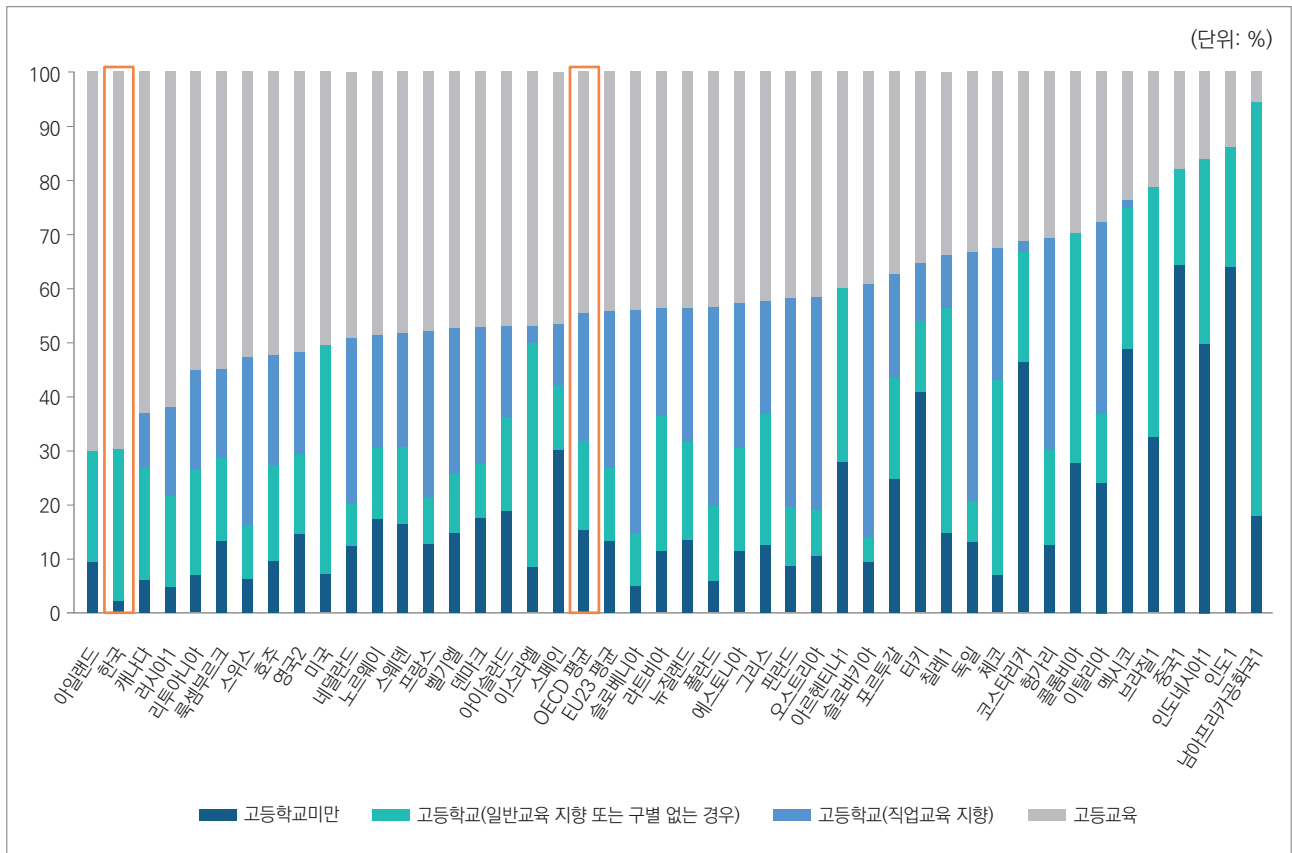
## 시사점

- 정부는 학문분야별·신산업분야별로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수요 및 공급 등을 전망하고, 핵심 연구인력 수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 대학교 및 산업계 등이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0년부터 시행된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은 대학원 교육·연구의 내실화 및 정성적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어 석·박사급 양성 인력의 질과 교육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팀장, 02-788-4700, nana@assembly.go.kr



## 2019년 25-34세 청년층의 교육 이수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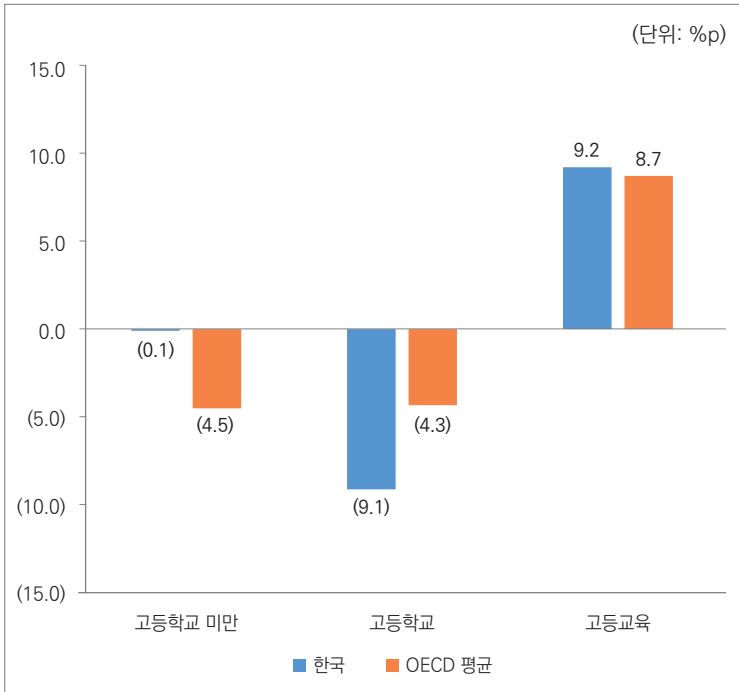


※ 주: 1. 국가명에 "1" 표시가 있는 국가는 2019년도가 아닌 과거 연도의 교육 이수율 자료임  
 2. 국가명에 "2" 표시가 있는 국가의 고등학교에 관한 데이터는 중급 후기중등교육(intermediate upper secondary program) 이수율 분류될 수 있는 충분한 교육량과 표준 프로그램 이수율 포함함  
 3. 고등학교는 후기중등교육 및 중·고등학교 수준의 중등교육 이후의 비고등교육을 포괄함  
 4.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은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석·박사급) 교육 등을 포괄하고, 그래프의 국가명은 고등교육 이수율 순위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Database, 2020.

- 2019년 OECD 회원국 38개국 및 비회원국 8개국의 25-34세 청년층의 교육 이수율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25-34세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대상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45.0%보다 24.8%p가 높음
  - 25-34세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아일랜드가 70.0%로 가장 높고, 캐나다 63.0%, 러시아 62.1%, 호주 52.5%, 영국 51.8%, 미국 50.4%, 프랑스 48.1%, 스페인 46.5%, 독일 33.3%, 이탈리아 27.7% 등임
- 우리나라 25-34세 청년들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이수율은 97.8%로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고, OECD 평균 84.5%보다 13.3%p 높음
  - 주요국의 25-34세 청년들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이수율은 러시아 95.3%, 캐나다 94.0%, 미국 92.8%, 호주 90.5%, 프랑스 87.4%, 독일 86.9%, 영국 85.4%, 이탈리아 76.2%, 스페인 69.8% 등임
  - 우리나라의 25-34세 청년들 중 고등학교 이수율은 28.0%로, OECD 평균 40.0%에 비하여 12.0%p 낮은 바,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진학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OECD 평균 대비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로 인해 고등학교 이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임

1 OECD기준에 따르면, 교육 이수율(educational attainment)은 전체 인구 중 특정 교육단계를 이수하고 그 교육단계의 공식적인 이수자격(최종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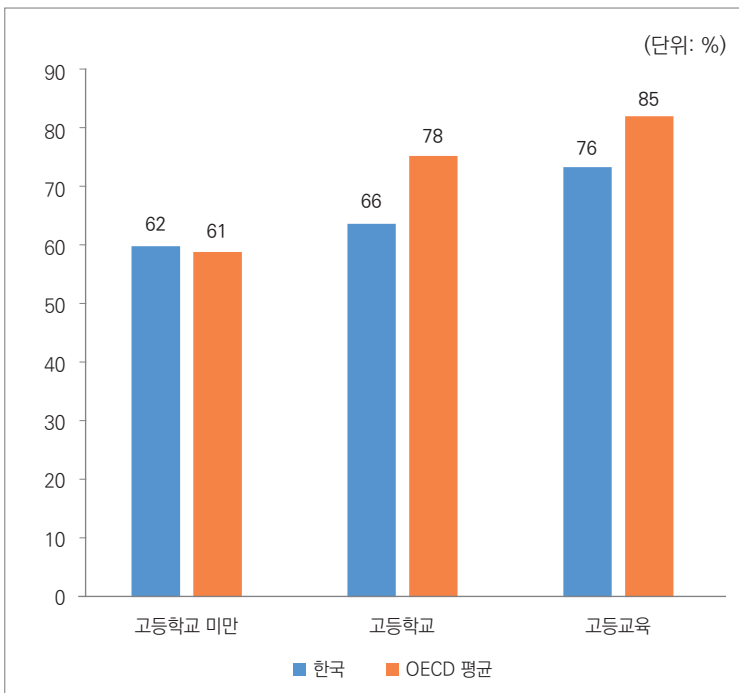
## 2009년과 2019년 사이에 25~34세 청년층의 교육 이수율 증감폭 비교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Database, 2020.

- 2009년과 2019년 사이에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교육 이수율 증감폭을 분석해보면, 고등교육 이수율은 10년간 9.2%p 증가하여 OECD 평균인 8.7%p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함
-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같은 기간 9.1%p 감소하여 OECD 평균 4.3%p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미만 이수율은 같은 기간 0.1%p 감소하여 OECD 평균 4.5%p 감소보다 더 작은 폭으로 감소함

## 2019년 25~34세 청년층의 교육 이수별 고용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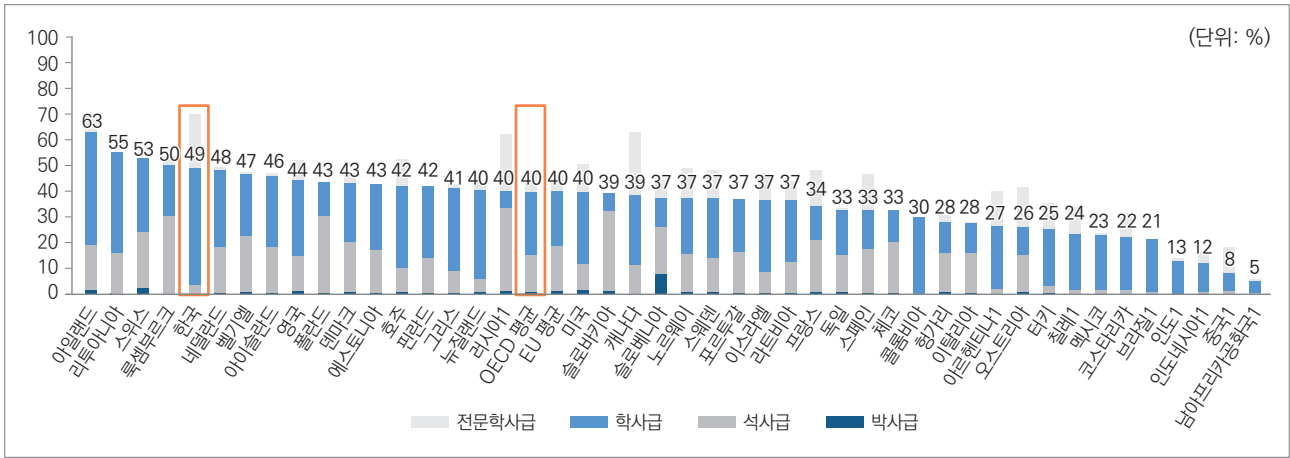


※ 주: 고용률 = 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 수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Database, 2020.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교육 이수별 고용률을 분석해보면,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76%로 OECD 평균 85%보다 9%p 낮음
- 고등학교 이수자의 고용률은 66%로 OECD 평균 78%보다 12%p 낮음
- 고등학교 미만 이수자의 고용률은 62%로 OECD 평균 61%와 유사한 수준임
-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좋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이 부족한 점, 공공부문과 대기업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장기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 비중이 낮은 점, 전공분야와 직업 간의 높은 불일치(mismatch) 비율 등에 기인함

##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학위별 이수율 국제 비교



※ 주: 1. 국가명에 "1" 표시가 있는 국가의 연도는 2019년도가 아닌 과거 연도의 데이터임  
 2. 국가명에 "2" 표시가 있는 국가의 고등학교(후기중등교육)에 관한 데이터는 중급 후기중등교육(intermediate upper secondary program) 이수율 분류될 수 있는 충분한 교육량과 표준 프로그램 이수율 포함함  
 3. 우리나라는 박사급 이수율이 별도로 제출되지 않아 석사급 이수율에 포함되어 있음  
 4. 그래프의 국가별 막대에 표시된 숫자는 학사급 이상 이수율이고, 국가 순서는 학사급 이상 이수율 순임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Database, 2020.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학위별 이수율은 전문학사급이 21%로 OECD 평균 8%보다 13%p 높고, 학사급이 46%로 OECD 평균 24%보다 22%p 높으며, 석사 및 박사급이 3%로 OECD 평균 15%보다 12%p 낮음
  -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학사급 이상 이수율은 49%로 조사대상 44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고, OECD 평균 40%보다 9%p 높은 수준임
- 다만, 각 분야 학문의 핵심 연구인력을 구성하는 석·박사급 이수율은 3%에 불과하여 OECD 평균 15%보다 12%p 낮고, 조사대상 44개국 중 33위에 그쳤음
  - 주요국의 석·박사급 이수율은 러시아 33%, 프랑스 21%, 스페인 17%, 이탈리아 16%, 독일 15%, 영국 15%, 미국 12%, 호주 10% 등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이수율, 고등교육 이수율, 학사학위급 이상의 이수율 모두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으나, 석·박사급 이수율은 하위권 수준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정부는 학문분야별·신산업분야별로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수요 및 공급 등을 전망하고, 핵심 연구인력 수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관계부처, 대학교 및 산업계 등이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0년부터 추진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학문분야별 우수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장학금 지원 학생 수와 논문 건수와 같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대학원 교육·연구의 내실화 및 정성적 평가 강화를 통한 교육성과의 질적인 도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지표로 보는 이슈」는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 사이트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Database(<https://data.oecd.org/education.htm>)

